

자전 수업을 아직도 한의대에서? 건물 명칭 변경 언제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서울】(구)한의학대학 건물 명칭 변경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본부 차원에서의 검토는 더디기만 하다.

(구)한의학대학은 현재 자율전공 학부, 국제교육원 등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물 구성원은 이미 이전한 타 단과대학 명칭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존감 하락, (구)한의학대학 명칭으로 인한 외부 이용자 혼란 초래, 우편물 오배송 등의 이유로 건물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규정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교내 건물, 조형물, 공간 일체 건축물 명칭은 '건축물명칭선정위원회'가 담당한다. 건축물명칭선정위원회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경희기록관에 따르면, 2020년 8월 자율전공학

부는 (구)한의학대학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국제교육원, 한국어센터, 글로벌미래교육원과의 논의를 거쳐 '한의학대학 건물명칭 변경 검토 의뢰' 업무 연락을 송부했다. 그해 9월, 건축물명칭선정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건물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본부에 전달했다. 또한 2023년 3월, 자율전공학부 학생회도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건물 구성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현재까지도 검토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미 이전한 타 단과대학 명칭을 사용하는 건물은 (구)한의학대학뿐이 아니다. (구)이과대학 동관, (구)이과대학 서관 또한 과거 건물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서관은 산학협력단이 거의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어 산학관이라고도 불리는 실정이다. 구성원의 건물 명칭 변경 요구



한의학대학 현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지수 기자)

가 잇따르자 제56대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는 위 사항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최관주(자율전공학 2020) 씨는 “과거에 한의대 건물이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구)한의대로 명명

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독자적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역시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축물명칭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캠 권오병 학무부총장은 “SPACE21 2단계 진행과 함께 (구) 건물 명칭 변경도 논의될 것 같다”며 “꽤 적지 않은 건물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때마다 건물 네이밍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건물의 통일성을 잃어갈 수 있다”고 답했다.

자율전공학부 행정실 이진섭 실장은 “아직도 건물 내에서 한의과대학 비상 대피도 등의 예전 인쇄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건물 명칭이 변경되면 새로운 인쇄물을 만들 수 있고 외부 이용자 건물 안내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사박물관 안범철 차장은 “한의대와 연계가 없지만 오해로 발생하는 우편물 오배송 등 사소한 불편 사항이 있다”며 “건물 명칭 변경은 숙원 사업이지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캠 학식 업체 이번 학기도 정상운영

황인찬 기자 philip0503@khu.ac.kr

【국제】지난해 11월 품질 논란이 일었던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생식당(학식) 업체 리앤이라미피네가 학생 만족도 조사 참여 인원 미달로 운영을 이어간다.

품질 논란 이후 한 달간의 집중 개선 기간 동안 학식 업체는 개선안을 토대로 운영을 지속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위생 및 품질 논란 후 업체에 대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식 운영방안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국제캠 러닝 총학생회는 출범 당시 생활협동조합 오프라인 매장 활성화와 같은 운영방안 개선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총무팀이 운영 주체인 학생회관 학식은 중도 계약 해지 요건 자체

가 없다. 다만, 제2기숙사 학식은 중도 계약 해지 요건을 언급하고 있다. 학생회관 학식은 3년 운영 후 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추후 2년의 계약 연장 여부를 평가한다. 반면 제2기숙사 생활관이 담당하는 제2기숙사 학식은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학식 만족도 조사에서 3회 이상 만족도가 60%에 미치지 못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 이후, 지난해 11월 제2기숙사와 총무팀 주관으로 실시됐던 학식 만족도 조사 참여 인원은 약 150명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만족도 결과 또한 60%에 미치지 못

했지만 참여 인원 미달로 계약 조항에 명시된 설문조사의 효력을 갖지 못했다. 당시 설문에 참여했던 박한빈(건축공학 2023) 씨는 “학식 문제가 뉴스에 보도되자 급하게 만족도 조사를 만든 느낌이 들었다”며 “정작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아 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국제캠 한영신 생활관장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꾸준히 학식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다음 만족도 조사에서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개선 기간 후에도 학식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개선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총무팀 주관으로 상호 윈윈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학교 측은 “계약 관계는 신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선부른 결정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2기숙사는 여자동 편의점 자리에 있었던 카페와의 권리금 소송으로 수년간 공실로 둘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다. 선부른 결정으로 학식 업체가 구해지지 못해 식당이 공실로 남는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학생회관 학식 계약기간은 2028년 1월, 제2기숙사 학식 계약기간은 2028년 8월까지다.



대학주보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